



방재안전코너

산악안전사고
산불발생시 행동요령
스키장 안전사고
가스안전 행동요령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 구조 요청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 ① 의식확인 ② 호흡확인
- ③ 맥박확인 ④ 출혈확인
- ⑤ 얼굴색 ⑥ 체온·피부상태 확인
- ⑦ 골절 확인 ⑧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 ⑨ 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예방처치 지혈 상처처치·골절 처치

산악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1.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2.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 셋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3.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4.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간다.
5.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6.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7.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8.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9.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10.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 산불 예방 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 산에서 산불을 발견한 때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때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 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 (괘이, 갈퀴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이 진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산불 진화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 산불 신고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 -481 - 4119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수칙

■ 스키장 이용방법

● 리프트 이용방법

▶ 타는 법

- 초심자는 부담 없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앞의 사람이 승차를 끝낸 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
- 리프트를 탈 때는 한손을 뒤로 내밀어 리프트를 확인 후 깊게 앉는다.
- 풀을 옆으로 해서 무릎에 놓으며, 2~4인승 리프트의 경우에는 옆 사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풀을 손으로 잡는다.
- 리프트 승차 후, 이동 중에는 의자를 흔들거나 스키를 버둥거리는 행위를 삼가 한다.
- 1인승 리프트 이용 시 옆 방향으로 걸터서 승차하는 경우, 리프트 기동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바른 자세로 탑승한다.

▶ 내리는 법

- 하차장에 가까워지면 안전표지판의 신호에 따라 안전바를 올리고 스키의 앞쪽을 올리면서 내릴 준비를 한다.
- 하차 위치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스키 앞쪽을 들고 침착하게 내려 직진한다.
- 2~4인승 리프트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뒤에서 오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차 후 신속히 이동하고, 넘어질 경우 안전요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리프트가 정지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 슬로프 활주 중 주의사항

- ▶ 자기의 기량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며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 ▶ 좁은 코스로부터 메인 코스로 합류할 때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단 정지한다.
- ▶ 넘어지면 신속히 일어난 후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충돌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 ▶ 바인딩이 풀리면 코스의 가장자리로 이동 후 스키를 다시 착용한다.
- ▶ 활주 중에 쉴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 ▶ 슬로프 표식의 지시사항이나 파트롤의 지시에 잘 따른다.
- ▶ 항상 다른 스키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탄다.
- ▶ 안전모를 착용한다.

■ 스키장 안전수칙

- 준비운동은 반드시 한다.
- 바인딩의 조임 강도는 자신에게 알맞게 조정한다.
- 리프트 탑승 중 심한 몸놀림은 탈선,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삼가고, 정지 시에는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직활강이나 과속, 난폭한 이용은 삼가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소리치거나 미리 넘어져 충돌을 피한다.
- 코스 중앙에서의 급정지, 휴식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코스 가장 자리를 이용 한다.
- 음주 후 리프트 탑승 및 스키·보드 타기는 절대 금한다.
- 한번만 더 타고 그만두고자 할 때, 그때 바로 그만둔다. 이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

■ 스키장 안전사고시 응급조치 방법

● 뼈가 부러졌을 때(골절)

- ▶ 부위에 맞는 부목을 대고 고정한다.
- ▶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 부상부위 근처를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 ▶ 골절부위가 원위치가 되도록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상하좌우를 파악하여 묶는다.
- ▶ 골절부위를 직접 고정하지 않는다. 개방성 골절(복잡골절) 시에는 상처부위에 소독 거즈를 대고 상부 지혈 후 부목을 하여 신속히 후송한다.

● 관절이 삐었을 때(염좌)

- ▶ 다친 부위를 안정시킨 후 고정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 ▶ 부상 후 즉시 눈으로 냉찜질을 한다.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온찜질을 한다.

▶ 적당한 힘을 가하여 탄력봉대를 감싸준다.

● 관절이 빠진 상태(탈구)

▶ 현장에서 탈구에 대하여 복원시키려고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다.

▶ 스키복을 느슨하게 하여 준다

▶ 부상자 본인이 가장 편안한 위치에서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법

● 본인의 사고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스키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슬로프에 진입하지 않는다.

● 스키장의 안전관련 방송을 수시로 청취하여 실행한다.

● 스키장의 질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스 안전행동 요령

■ 평상시 안전관리

● 사용 전 주의사항 : 환기

- 가스 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 사용 중 주의사항 : 불꽃 확인

- 점화 시에는 불이 붙었는지 확인된다.(가스사용 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 사용 후 주의사항 : 밸브 잠금

-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모두 잠가야 한다.

● 평상시 누설점검

-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해빙기 안전관리

●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침하 때문에 땅속의 배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내 집으로 연결된 배관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용기와 호스의 상태를 살펴보고, 연결부위가 느슨해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균열, 붕괴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 이사철 안전관리

- 이사할 곳의 가스 종류가 LPG인지 도시가스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기왕에 사용하던 gas와 다를 경우에는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시어 열량 변경작업을 하여야 한다.
- LPG는 해당 판매업소,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가스 시설 철거와 설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특히,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막음 조치가 필요하다. 가스배관을 가정용 테이프 등으로 허술하게 마감할 때, 가스 누출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막음 조치를 받으셔야 안전하다.

■ 장마철 안전관리

-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 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교체해야 한다.
- 특히, 대기의 순환이 잘 안되는 장마철에는 LP가스가 누출되면 바닥과 같은 낮은 곳에 체류,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 갑작스런 호우로 침수가 우려되면 LP가스 사용 때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도시가스 사용시는 중간밸브와 계량기 전단의 메인밸브까지 잠근다.
- 침수 후 가스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레인지의 깨끗한 물로 씻어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해 알려주고, 가스보일러는 보일러사의 서비스를 반드시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휴가철 안전관리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연소기의 마개(콕)는 물론 반드시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밸브)까지 잠가 두어야 한다. 또한, 휴가를 떠난다는 사실을 이웃집에 알려 태풍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집에 돌아와 가스시설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시설의 연결 부분을 점검액(비눗물)을 이용하여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하며 태풍이나 폭염에 가스시설이 악영향(손상)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음식을 조리할 때,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복사열 때문에 부탄 캔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부탄 캔 장착(접속)상태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반드시 부탄 캔을 분리시켜 보관하고, 다 쓴 부탄 캔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실외에서 구멍을 낸 후 화기가 없는 곳에 버리도록 한다.

■ 겨울철 안전관리

- 겨울철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원인은 보일러를 환기 불량한 장소 등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급·배기구 설치 불량, 배기관 연결부 이탈 등으로 인해 폐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저한 보일러 시설점검과 환기로 가스 사고를 예방한다.
- 보일러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보일러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보일러 사용 전에는 반드시 배기관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배기관 안에 새집 등 이물질은 없는지 꼭 확인한다.
-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를 막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꼭 열어 두어야 한다.